



팝업스토어 '윈디스' "행복을 드려요" L1



Life

대웅제약
기술수출 1조 돌파
L2



27년 교육에 몸 담은 '입시 전문가'

“정답 없는 입시... 한 과목에도 최선 다한 ‘경험적 가치’ 중요”



새벽을 여는 사람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이사

“입시만큼은 모두가 겸손해야 한다.”
입시계를 자그마치 27년간 지켜온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의 목직인 당부다. 그는 입시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무지해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물음도 질문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비단 학생, 학부모뿐만 교직을 맡고 있는 교사·강사 등 전문가들까지도 예외는 아니다.
수험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모두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사교육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한 입시 정보, 공교육의 현장 정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입시 지도 교사들끼리의 정보 교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전반적인 교육 불균형,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아래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같이 가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로를 배제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넘겨지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수험생과 학부모도 결국에 공·사교육의 정보를 두루 원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소년기부터 시작된 교육과의 인연... 입시계 정착까지

임 대표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은 입시계가 아닌 대기업 롯데였다. 또한,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전공과는 다소 무관한 수학 강사의 길을 걷기도 했다. 이렇듯 연결 지점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 엮이면서 결국 입시라는 교육 근거지에 정착했다.

그는 “교육과의 인연이 미스매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생 전반적으로는 늘 가르침과 연관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수학 교육과의 인연은 어린 시절 추억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경북 예천 소재의 시골 중학교에 재학했던 임 대표는 중학교 시절 내내 수학자습부장을 맡았다. 수학자습부장은 수업이 끝난 후 1~2시간 가량 학우들을 가르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당시 담임 교사는 선생님의 길을 걸으라고 제안할 정도로 역할을 잘 수행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반 전체를 지도하고, 가르쳤던 그 기억이 교육에 흥미를 갖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다며 추억을 회상했다.

이후 경제학도가 된 그는 역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교육에 특별히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도 수학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적으로 이어갔다. 임 대표이사는 “대학을 다닐 때 했던 수학 강의도 서울에 막상경한 탓에 긴장감은 있었지만 재미있었다”며 “사실은 경제학 전공이기 때문에 사회를 가르쳐야 하는데 수학을 담당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 인연이 이어져 본격적으로 학원가에 들어섰을 때도 경제학에 맞는 사회 과목이 아닌 수학을 가르쳤다.

인생 곳곳에 교육의 뿌리가 숨겨져 있는 그는 가장 보람찼던 교육 사례로 탈북자의 자녀를 가르쳤던 일화를 꼽았다. 종로학원의 초창기 강사 중에는 ‘수학의 정석’을 집필한 흥성대 상산고 이사장이 있었다. 흥

이사장은 임 대표에게 직접 탈북자의 자녀를 데려와서 가르쳐 달라고 했다. 여건 상 상산고에서는 교육받을 길이 부족했던 학생을 위해 본인 사비로 50%, 종로학원 측에서 50%를 부담해 재수를 부탁한 것이다. 결국 그 학생은 성공적으로 대입을 마무리하고 선생님의 길을 걷게 됐다.

임 대표는 “당시 이런 게 교육에 대한 진정성을 많이 느꼈다”며 “재수가 고등학교 4학년 과정으로 불리는 이유, 당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못 들어간 학생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 프로필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경영사 과정
- (주)종로학원 대표이사 - (주)종로학력평가연구소 대표이사
- (주)하늘교육 대표이사 - EBS 정책자문위원
- 이코노미스트 자문위원 - 한국경제신문 교육칼럼니스트
- 대입·고입 관련 저서
- 의치대 학년별 로드맵(2016)
- 엄마가 세우는 대학입시 성공전략(2014)
- 이렇게 해야 특목고 갈 수 있다(2007)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대기업 뒤로하고 입시교육에 정착 전공과 무관한 수학강사 길 걷기도 탈북자 자녀 대입 도우며 교육 보람

재수학원, 또다른 ‘제3의 학교’ 형태 1990년대 중반, 학원 대형화 이뤄져 특목고 설명회에 1만명 이상 몰리기도

입시 스케줄 관리 등 학부모 역할 중요 수험생 정보 제공 위해 모두 단합해야

다는 재수 학원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 체감했다”고 말했다. 재수 학원을 또다른 제3의 학교 형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그는.

◆27년 전문가, 학원 사업의 산증인

1990년대 중반기에는 학원들의 대형화, 프랜차이즈화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즈음 임 대표도 대학생 시절 강의했던 학원과의 인연으로 학원가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강의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경영 쪽에 집중했다”며 “당시 종로학원이 종로엠스쿨 대형학원 1호의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형 학원으로 전환되던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학원계가 상당한 호황을 이뤘다. 특히 1997년 말에 발생했던 외환 위기(IMF)는 학원 대형화의 뿌리가 됐다. 임 대표이사는 “국내 소형 학원들은 타격을 받았지만 대형화로 가는 학원들은 오히려 IMF가 하나의 기회가 됐다”며 “대기업에 다녔던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았던 학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소규모보다는 대형 중심의 브랜드 학원 선호가 높았고, 프랜차이즈 학원이 300개가 넘는 정도로 학원 사업이 붐이었다.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는 내신제도의 변화 등으로 입시 쪽에 집중됐던 관심이 특

목고·외고 등에 쏠렸다. 2000년대 초반에는 특목고 설명회가 대학 입시 설명회보다 인기가 많을 정도였다. 임 대표는 당시 대학 입시 설명회에 5,6천명 정도가 모이면 많은 인원으로 평가됐음에도 특목고 설명회에는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할 정도로 집중도가 높았다고 부연했다.

◆입시에서 방심은 금물... 경험적 성취감도 중요

임 대표는 “대학입시에서 생각보다 사소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학부모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입장에서 입시에 겸손하다면 수준 미달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내려두고 자신 있게 물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짜 말 같지도 않아 보일 수 있는 질문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학부모”라며 “기본적인 스케줄, 핵심 쟁점들은 메모하고, 확인하면서 체크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서 접수 날짜를 놓쳤다가, 원서 접수를 학원·학교에서 해준다고 착각해 손놓고 있었던 안타까운 사례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또한, 입시에서는 불필요한 고민을 제거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기가 좋아하는 한 과목이라도 최선을 다해 한 번쯤 노력해 보는 경험과 기록이 참 중요하다”고 경험적 가치를 언급했다. 입시에서 지나치게 상위 대학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사실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현재 학부모 세대들도 모두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막바지에 그는 “입시구조에서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이 최선을 다해 봤다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학생들을 입시 선수가 아닌 교육 대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임 대표이사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NBA 피닉스, ‘파이널 이끌었던’ 윌리엄스 감독 경질 /사진 뉴시스
▲김하성, 시즌 4호 홈런 ‘왕’...샌디에이고는 패배

▲재정비 마친 오승환, 열흘 만에 1군 엔트리 등록
▲“포체티노, 첼시 지휘봉 합의를”



▲‘이재성 64분’ 독일 마인츠, 프랑크푸르트에 0-3 완패 /사진 뉴시스
▲북한 역대, 2024 파리올림픽 예선전 참가할 듯